

유학의 음악교육관 연구

이 경 언*

차 례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II. 악의 성립
 - 1. 악의 기원, 心
 - 2. 情의 발현, 聲
 - 3. 미적 형식을 갖춘 소리, 音
 - 4. 내용과 형식의 통일, 樂
- III. 악의 작용과 교육적 의의
 - 1. 음악의 역할과 효과
 - 2.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3. 음악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예악
- IV.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음악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철학이나 사상을 한 두 가지로 제한하거나 특정한 관점에 국한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의 철학이나 사상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보태어지고, 사상가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물며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음악교육에 영향을 준 사상을 논하는 마당에서는 한 가지로 규정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다.

이미 우리의 교육사상적 전통으로 거론되는 것만 보아도 무속, 불교, 유교, 실학, 동학 등 여러 가지이다. 게다가 이들을 어느 한 가지 특정 사상의 범주 속에서 완벽하게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속신앙이나 불교, 유교, 동학 등을 종교의 범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사상의 범주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도 그렇고, 이들의 사상적인 전통의 내용 구성이나 성격 자체가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사상적 전통에 대한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음악교육의 사상적 전통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음악교육의 사상적 전통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상에 대한 본질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음악교육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음악교육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교육사상들 중에서도 유학에 집중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유학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랜 세월 동안 교육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민족이 유학을 받아들인 것은 삼국시대부터이고, 고려 때에는 유교경전을 통해 과거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 지식인들의 가치체계나 통치이념은 유교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지만 관료들의 지식체계나 정치철학은 유교적이었다. 관료출신의 지식인들, 특히 斥佛崇儒의 기치를 내건 조선조의 신홍사대부 출신 관료들이, 조선 건국에서 유교 사회 건설을 위하여 맹활약했다. 결국 교육과 정치의 형식적 제도는 사실상 유학의 주도 하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적 교육을 지배하는 전통적 문화는 유학이 지향하는 바의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유학이 전통적인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음악을 통한 인간성의 실현이라는 교육목적, 詩, 樂, 舞가 하나가 된 교육내용,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쪽을 잘 살펴서 그에게 맞는 것을 선별하여 그에게 맞는 속도로 제시해야 한다는 교수-학습 방법, 내면적인 실질에 충실한가를 평가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음악교육에서의 유학적 특징은 유학적 음악교육관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유학적 음악교육관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교육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유학적 음악교육관은 음악의 근원 및 개념, 역할 등 그 철학적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 음악으

로 표현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음, 악조, 형식, 악기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학적 준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학에서 음악은 미적 감상의 대상이기보다는 백성을 교화하고, 안정된 정치를 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적 음악교육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교육관을 이해하고 이것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알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음악교육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이 다양하고, 그것이 현재의 음악교육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차별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유학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점에는 다른 사상들에서의 관점과는 다른,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유학 내에서의 사소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내고자 한다.

유학의 음악사상은 공자(B.C. 551~497)에서 비롯되어 맹자와 순자(B.C. 315?~238)의 악론으로 이어져 『예기』의 「악기」에서 집대성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저작인 『논어』, 『맹자』, 그리고 『순자』의 「악론」과 『예기』의 「악기」가 구체적인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음악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사상의 중요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 『중용』과 『주역』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의 음악교육관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풍부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기본 전제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풍부해져 유학의 음악교육적 본질을 이루어내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편, 유학에서의 음악교육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음악관에 관한 고찰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학에서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어떤 예술 장르의 그것보다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음악의 본질이 인간과 사회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음악교육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유학에서의 음악교육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은 그 사상의 발원지인 중국에서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 속에서 음악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악의 기원과 개념, 역할, 교육적 의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음악교육의 본질을 이끌어낼 것이다.

II. 樂의 성립

음악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음악의 기원, 본질, 역할, 가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음악의 기원과 본질의 문제는 음악 자체의 규명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음악을 제작하고 향유했던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음악교육의 본질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음악의 기원과 본질의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도 음악교육관이 음악관에 의해 규정되고, 근본적으로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음악관, 음악교육관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그를 둘러싼 인생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한다.

음악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유학의 관점이 집약되어 있는 곳은 「악기」이다.¹⁾

“무릇 음의 기원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外物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외물에 감응되어 움직이므로 소리[聲]로 나타난다. 소리가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나고, 변화가 생겨나 곡조를 이루면 그것을 ‘음’이라 한다. 여러 가지 음을 배합해서 연주하고 干戚과 羽旄로 武舞와 文舞를 추게 되면 그것을 ‘樂’이라 한다.”²⁾

위의 내용에는 음악의 기원과 개념, 성립 단계에 관한 단서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음악의 기원은 인심(人心)이다. 둘째, 마음이 음악의 기원이기는 하나 마음에서 곧바로 악이 나오는 것

1) 「악기」는 『예기』의 49편 중 19편에 속한다. 중국고대에 있어서 음악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논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저술로서, ‘악’뿐만이 아닌 예술 일반에 대한 유학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다.

2) 『禮記·樂記』,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 謂之樂”

은 아니다. 소리(聲)와 음(音)의 단계를 거쳐야 악(樂)에 이를 수 있다. 즉, 악은 소리와 음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다. 셋째, ‘마음(心)→소리(聲)→음(音)→악(樂)’의 단계에서 각 단계로의 이행은 저절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각 단계로의 이행에는 특정 요소의 작용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악의 기원과 개념, 성립 단계에 관한 견해가 음악 또는 예술에 대한 유학적 관점 또는 유학적 인간관과 세계관에서의 음악적 견해라고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즉, 악의 기원을 심으로 보게 된 이유에는 심에 관한 유학적 관점이 작용했으며, 성과 음이 전제된 악의 의미에는 인간에 대한 악의 작용의 유학적 관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악의 본질 연구를 위해서는 악의 기원에서 개념 정립에 이르기까지의 성립 과정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악의 성립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성립 과정에서의 각 단계, 즉 악의 기원인 심, 심→성, 성→음, 음→악의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유학적 관점과 그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악의 본질에 대한 유학적 관점이 드러날 것이다.

1. 악의 기원, 心

유학에서 악의 기원을 ‘심’으로 파악하고 있음은 앞서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악의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히 ‘심’이 아닌 ‘외물에 감동된 심’이라고 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심’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물에 느끼어야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것은 외물에 느끼어 움직이기 이전의 ‘심’, 심지동(心之動) 이전의 ‘심’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심지동 이전의 ‘심’은 어떤 ‘심’인가? 심지동 이전의 ‘심’의 의미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악기」의 다음 부분이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고요한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본성이고, 외물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은 본성의 욕구이다. 외물이 다가오면 인식 기능을 통해 감지하게 된다.”³⁾

주3)에서는 ‘음이 인심에서 나오며, 인심의 움직임은 외물이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주4)에서의 ‘외물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은 주3)의 ‘인심이 외물이 것처럼 만 들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주4)의 ‘외물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3) 『禮記』 「樂記」,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전의 고요함(精)과 본성(性)은 주3)의 인심이 사물이 그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기 이전의 '심'의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결국 심지동 이전의 '심'을 '정(精)'과 '성(性)'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은 곧 '하늘의 성(天之性)'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유학에서의 '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성'을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본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 『중용』에서의 '하늘이 명하는 것으로서의 성'4)은 바로 '성'이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써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성'이라는 관점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학에서 '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용어가 '중(中)'이다. 『중용』에서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서의 중'5)에서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는 '심이 아직 외물에 느끼어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 즉 '심지동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성(性) 그 자체이며, 고요한(精)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악기」에서 “악은 가운데(中)에서 나오고, 예는 밖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가운데에서 나오는 까닭에 고요하고 밖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까닭에 꾸밈(文)이 있다.6)”고 했을 때 ‘가운데(中)’의 의미는 앞에서 ‘음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서의 ‘심’ 특히 ‘心之動’ 이전의 심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중’은 심지동 이전의 심으로서의 ‘정’ 그리고 ‘성’과 같은 의미가 된다.

결국, 악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심(心)은 만물의 처음 상태인 성(性)으로서, 중(中)과 같은 의미이며 정(精)의 상태인 것이다.

2. 情의 발현, 聲

‘악’은 천리가 내재한 본성, 즉 ‘성’으로서의 ‘심’이 외물에 감응하여 움직인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심지동의 결과가 바로 ‘악’이 되지 않는다. 외계로부터 느껴지는 것은 먼저 ‘소리(聲)’로 표현된다. ‘심’에서 심지동을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원리를 「악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樂이란 음으로부터 생겨나므로,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감응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소리가 급하고 가늘며, 즐거운 마음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소리가 여유롭고 느긋하며, 기쁜 마음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소리가 드날리고 홀어지며, 분노의 마음

4) 『中庸』, “天命之謂性”

5) 『中庸』,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6) 『禮記』「樂記」, “樂由中出 禮自外作 樂由中出故精 禮自外作故文”

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소리가 거칠고 사나우며, 경외심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소리가 곧고 모가 나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소리가 조화롭고 부드럽다. 여섯 가지는 性이 아니고, 외물에 감응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다.”⁷⁾

“대저 사람에게는 혈기와 心知의 일정한 性이 있지만, 喜怒哀樂의 情은 일정하지 않아서 외물에 자극을 받아 일어난 것에 반응하여 움직인다. 그런 뒤에 마음씨가 겉으로 나타난다.”⁸⁾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심’이 ‘악’의 근원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聲’의 발현이 ‘심’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4)에서도 ‘외물이 다가오면 인식기능을 통해 감지하게 된다’고 하였거니와 ‘聲’의 발현에 ‘심’의 작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심의 지각능력(心知)’ 때문이다. ‘심’은 精한 상태로서의 ‘性’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회노애락의 ‘情’은 없기 때문에 ‘심’의 지각 작용에 의해 사물에 감응한 ‘情’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심’에 관한 문제를 부각시켜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은 맹자(B.C. 372-289)가 처음이며, 순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용』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사물의 본성까지 ‘성’으로 보는 데 반해 맹자는 인간의 본성만을, 그 중에서도 이목구비의 작용에 따른 본성이 아닌 ‘심’만을 본성이라고 보았다.⁹⁾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심’은 언제나 인의예지의 ‘성’과 관련된 ‘심’이었고, 이러한 근거에서 성선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¹⁰⁾

맹자가 말한 ‘심’이 선할 수 있는 근거는 ‘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¹¹⁾ ‘심’의 이러한 사려분별의 기능으로 인해 선한 ‘심’이 악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7) 『禮記』「樂記」, “樂者 音之所由生也 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 是故其哀心感者 其聲噍以殺 其樂心感者 其聲嘽以緩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 其聲和以柔 六者 非性也 感於物而後動也”

그리고 集說에는 ‘이 여섯 가지가 성(性)이 아니고 정(情)이다(六者 心感於物而動 乃情也 非性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8) 『禮記』「樂記」,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9) 맹자는 ‘성’을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인류가 다른 생물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맹자는 이 부류를 ‘식색의 본성(食色之性)’, ‘이목구비의 본성(耳目口鼻之性)’ 등으로 말했고, 다른 하나는 오직 인류만이 갖는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본성으로 ‘인의예지의 본성(仁義禮智之性)’이라 칭했다.

10)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단서(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가 바로 이 인의예지의 본성이 발현한 것이고, 이밖에 不忍人之心, 良心, 良知 등이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여 그의 성선설을 입증한다.

11) 『孟子』, “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孟子曰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 鈞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不 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결국 맹자의 성선설도 ‘심’의 작용이라는 논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에 순자의 심성론 구조는 맹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다. 맹자는 인의예지를 ‘성’으로 규정했지만, 순자는 이를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다루어야 할 덕으로 간주했다. 순자가 ‘성’으로 긍정하는 것은 맹자가 ‘식색지성’, ‘이목구비지성’이라 지칭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적 욕망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무절제하게 되어 결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것¹²⁾이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순자가 말한 악한 인간의 본성이 선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심’이다. 순자가 말하는 ‘심’은 인식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心知의 판단에 의하여 인간은 악에서 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이 ‘정’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심’의 인식능력에 의한 선택작용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순자는 그러한 인식능력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외재적인 도에 의거하여 인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도로서 ‘심지’의 정확성을 보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순자는 음악에 대한 욕망도 방임되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제와 규범 즉 예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갖춘 음악인 예악은 도를 깨우친 선왕에 의해서만 제작 가능한 것이 된다.

따라서 「악기」에 나타난 ‘심’의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 인식·지각능력의 측면을 강조하여 ‘악’을 통하여 ‘심’을 바르게 해 나감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맹자와 순자에 있어서 ‘심’, ‘성’, ‘정’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이 ‘정’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심’의 작용을 문제삼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의 인식능력이나 지각능력이 중요하게 애기되는 것이다.

결국 ‘情’은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情’이 발해 나와서 ‘聲’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은 ‘심’의 작용이며, 이는 ‘심’의 지각능력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미적 형식을 갖춘 소리, 音

마음이 외물에 감응하여 나타난 聲은 ‘소리’일 뿐 ‘악’이 아님은 주2)에서도 밝힌 바 있다. ‘소리가’ ‘악’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으니 바로 ‘음’이다. ‘소리’가 ‘음’이 되

12)『荀子』,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

기 위한 조건을 「악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므로 소리에 나타나고, 소리가 곡조를 이루면 그것을 ‘음’이라 한다.”¹³⁾

「악기」는 ‘소리’와 ‘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음’은 마음 속에서 감정이 움직여 소리로 표현된 것의 결과이지만, ‘소리’는 꾸밈을 이루어야 비로소 ‘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문’을 ‘질’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공자는 ‘문’을 겉치레, ‘질’을 바탕이라고 하여¹⁴⁾ 사람에게 있어 말과 행동처럼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이라 하고 학문이나 교양처럼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질’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문’과 ‘질’은 단순히 상반되는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 어울려 존재해야 하는 것, 즉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문’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좀더 구체적인 미적 의미들을 부여한다. “물(物)이 서로 섞이는 까닭에 무늬(文)라고 한다.”¹⁵⁾에서는 ‘문’이 잡다한 사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대인의 모습은 털갈이를 한 호랑이에 비유되며, 그 무늬는 밝게 빛난다.”¹⁶⁾나 “군자의 모습은 털갈이를 한 표범에 비유되니 그 무늬는 아름답다.”¹⁷⁾에서처럼 ‘문’은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 색깔과 무늬를 말하며, 무늬는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잡다한 사물이나 무늬로서의 ‘문’이 서로 연계도 없이 섞여 있기만 하거나 아름다운 겉모습을 형용하는 데 그치는 개념이 아님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성인은 번잡한 천하의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래서 제각기 다른 형태와 모양을 모의하여 그 물성에 맞도록 형상화하였으니 … ‘천하의 지극히 번잡한 사물에 대해 말해도 누구도 그를 싫어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⁸⁾

성인은 지극히 번잡한 사물이지만 싫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번잡한 사물일지라도 어떻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성에 맞도록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잡다한 사

13) 『禮記』「樂記」, “凡音者 生人心者也 情動於中 故形於聲 聲成文 謂之音”

14) 『論語』「雍也」,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

15) 『周易』「繫辭·下」

16) 『周易』, “大人虎變 其文炳也”

17) 『周易』, “君子豹變 其文蔚也”

18) 『周易』「繫辭·上」, “… 言天下之至赜而不可惡也”

물일지라도 그 사물의 속성, 그 속에 내재된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미와 연계되어 있는 ‘문’은 반드시 잡다한 속에서도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⁹⁾

결국 ‘문’은 단순한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적 법칙의 형상화를 통한 조화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서의 형식인 것이다. 따라서 ‘음’이란 ‘소리’로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소리의 특성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미적 형식으로서의 음악적 형식을 지닌 것을 말한다.

4. 내용과 형식의 통일, 樂

‘情’의 발현으로서의 ‘聲’에 미적 형식을 갖춘 것이 ‘음’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음’도 그대로 ‘악’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정’의 표현이 전부 ‘악’을 이룰 수는 없으며, 그리고 미적 형식만을 갖춘 ‘음’을 ‘악’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3)에서 ‘여러 가지 음을 배합하여 연주하고 춤추게 되면 음악이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음악적 형식을 갖춘 음을 악기로 연주하고 춤추면 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을 연주하고 이에 맞추어 춤추는 것이 음악이라는 현상적인 측면 말고도 이에 두 가지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고대 중국(한국의 전통음악을 포함한)에서 ‘악’은 노래와 연주뿐만 아니라 무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연주와 무용으로 꾸미는 데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어 이것이 연주와 무용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악기」에서는 ‘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악은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것’²⁰⁾이라고 하여 음과 악을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논의와 관련된 두 번째의 ‘일정한 이치’와 관련된 측면만을 따로 떼어 말한다면 그것은 음악에서 담아야 할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공자는 순(舜)임금의 음악인 ‘소(韶)’를 평하여 아름다움을 다했고 또 선함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왕(武王)의 ‘무(武)’를 평하면서는 아름다움을 다하기는 했지만 선을 다하지는 못했다고 했다.²¹⁾ 여기서 공자는 미와 선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선을 윤리, 도덕의 내용(質)으로 이해하고, 또 미는 이러한 내용의 형식(文)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가 주장한 ‘질’과 ‘문’의 통일은 곧 선의 내용과 미적 형식의 통일이며, ‘진선진미(盡善盡美)’가 되는 것이다.

맹자의 사상에서는 미는 이미 선에 포함되어 있어, 선이 그것 자체와 서로 통일된 외재적인 감성 형식 중의 완전한 실현이며, 결코 선의 외재적인 것, 선과 서로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형식

19) 이택후·유강기 편, 권덕주·김승심 공역, 『중국미술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368쪽.

20) 『禮記·樂記』, “凡音者生於人心者也 樂者通倫理者也”

21) 『論語·八佾』,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이 아니다. 공자와 비교할 때 맹자는 미와 선의 내재적인 일치성도 더욱 심오하게 발전시키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맹자에게 있어 미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아 실현, 자아 긍정과 다름없기 때문에, 선의 실천이 인간의 자아 긍정으로 드러날 경우 선은 곧 미와 동일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윤리, 도덕상의 선을 미와 통일시키거나 선에 속하는 것으로 바라본 관점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자는 공자, 맹자와 달리 악과 개체 인격의 완전한 선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를 전에 없이 세속화하였다. 순자는, 미는 본래 사람의 외부 세계의 다양한 활동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고, 사람의 외부 세계의 다방면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되며, 세속적인 각종 각양의 생활을 벗어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가 중시한 것은 ‘欲’을 ‘禮’와 통일해서 욕망의 만족으로 하여금 ‘예’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였으며, 광범위한 ‘풍속을 바꾸는’ 사회적 공능의 문제였다.

‘악’을 통해 도덕적 선을 실천하려는 공자, 맹자의 관점, ‘악’은 반드시 사회의 정치, 윤리의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함을 강조하는 순자의 관점은 『樂記』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무릇 악은 즐거움이므로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즐거움은 반드시 소리로 표현되며, 움직임으로 나타나니 이것이 사람의 도인 것이다. 성음과 움직임에 성정(性情)의 변화가 모두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즐거움이 없을 수 없고, 즐거움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드러날 때 바른 도리로 행하지 않으면 어지럽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선왕이 그 어지러워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아·송의 소리를 만들어 이를 인도했다. …이것이 선왕이 악을 만든 방향이다.”²²⁾

즉, 인간의 감정이 있는 한 ‘악’은 없앨 수 없는 것이며, ‘악’에는 인간의 소리와 움직임, 성정의 변화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형성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짐을 걱정하여 이를 바르게 하려고 선왕이 ‘악’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의 표출, 모든 ‘정’의 표출이 ‘악’이 될 수 없으며, 바르게 표출된 ‘정’만이 ‘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르게 표출된 ‘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릇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樂이란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는 알면서 음을 모르는 것은 짐승이 이 경우에 해당하고, 음을 알면서 악을 모르는 것은 평범

22) 『禮記』『樂記』, “夫樂者 樂也 人情之所不能免也 樂必發於聲音 形於動靜 人之道也 聲音 動靜 星術之變 盡於此矣 故人不耐無樂 樂不耐無形 形而不爲道 不耐 無亂 先王恥其亂 故 制雅頌之 聲以道之… 是先王立樂之方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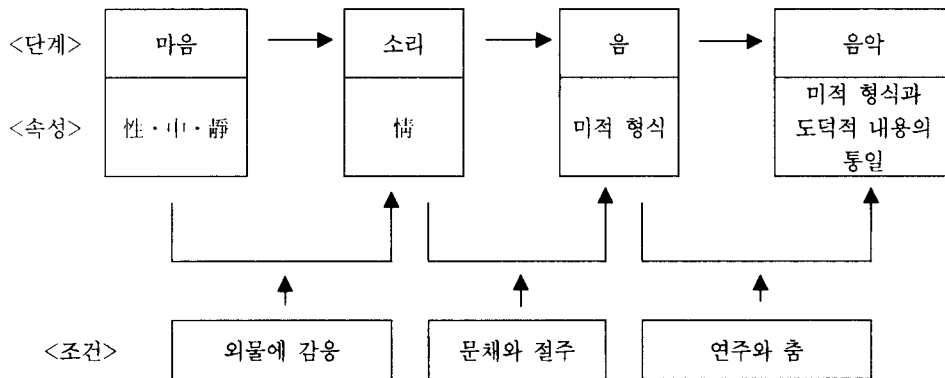
한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오직 군자만이 악을 알 수 있다."²³⁾

여기에서 ‘소리’만 알고 ‘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금수에 비유한 것은 금수가 문채와 절주를 지닌 ‘음’의 미는 감상할 줄 모르고, 단지 ‘소리’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만을 아는 것을 평범한 사람에 비유한 것도 그저 문채와 절주를 지니고 있는 ‘음’의 형식미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악’을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은 정치, 윤리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음’만 알지 ‘악’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말하자면 ‘악’은 ‘음’으로 사람들에게 미적 감동을 줄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의 감정을 표현해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일반적인 ‘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윤리, 도덕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음’인 것이다.

따라서 유학의 ‘악’에서는 순수한 미적 형식을 갖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선의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악’을 통한 인간 완성, 사회적 공능 등 ‘악’의 작용에 관한 관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악’이 된다.

지금까지 악의 기원으로부터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음악의 성립 과정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의 기원은 사람의 마음이다. 둘째, 마음이 기원이기는 하나 마음에서 곧바로 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소리와 음의 단계를 거쳐야 악에 이를 수 있다. 셋째 ‘마음→소리→음→악’

23) 『禮記·樂記』, “凡音者 生於人心者也 樂者 通倫理者也 是故知聲而不知音者 禽獸是也 知音而不知樂者 衆庶是也 唯君子爲能知樂”

의 단계에서 각 단계로의 이행은 저절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각 단계로의 이행에는 특정 요소의 작용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소리는 외물에 감응된 '정'에 의해, 음은 미적 형식을 담아서, 악은 형식과 도덕적 내용이 통일되어 이루어진다.

III. 악의 작용과 교육적 의의

1. 음악의 역할과 효과

인간의 감정은 소리로 나타나게 마련이니 인간에게 음악이 존재함은 필연적임을 보았다. 즉, 음악은 인간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마음 → 소리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조건이 되는 외물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왕은 이 외물의 한 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가 인간의 마음에 주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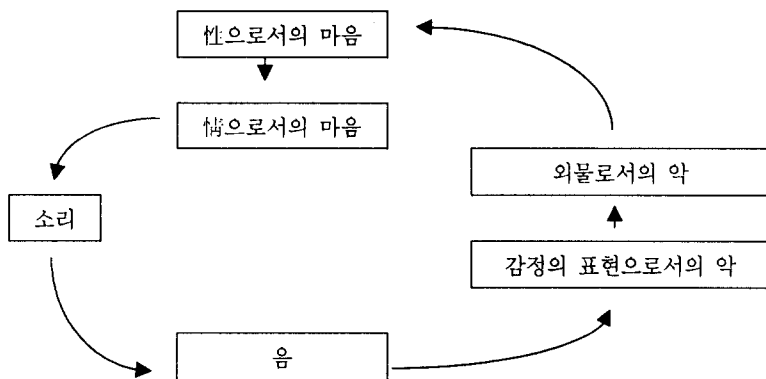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선왕은 감응시키기를 신중히 했다. 그래서 예의로 사람들의 뜻을 인도하였고, 음악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조화시켰고, 政令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켰으며, 형벌로 사람들의 간사함을 막았다. 예의·음악·형벌·정령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이니, 그것은 민심을 통일하고 올바른 통치 방법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²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치의 방법으로 예의, 음악, 형벌, 정령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음악이 외물의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음악이 인간 감정의 표현이라 하였는데, 다시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음악이 계속 순환하면서 성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악의 두 가지 역할, 즉 인간 감정의 표현으로서의 역할과 인간의 감정 형성의 조건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음악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우선, 음악이 인간 감정의 표현임으로 해서 민심을 살펴 정치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4) 『禮記』「樂記」, “是故 先王慎所以感之者 故禮以道其志 樂以和其聲 政以一其行刑 以防 其姦 禮樂刑政 其極一也 所以同民心而出治道也”



<그림 2> 음악 성립의 순환 과정

“무릇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므로 소리에 나타나고, 소리가 곡조를 이루면 그것을 ‘음’이라 한다. 그래서 잘 다스려져 안정된 세상의 음은 편안하고 즐거우니, 그 정치가 조화롭기 때문이다. 난세의 음은 원망과 분노에 차 있으니, 그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망해가는 나라의 음은 슬픔과 근심에 차 있으니 그 백성들이 괴롭기 때문이다. 聲音의 도는 정치와 상통하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백성들이 표현한 성음은 백성들의 편안하고 즐거움, 원망과 분노를 담은 것이므로 이를 통해 잘 다스려져 안정된 세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이 인간의 감정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좋은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좋은 영향을, 나쁜 음악은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순자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악도 그것이 좋은 음악, 조화되고 장중한 음악일 때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 역기능의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음악이 조화되고 평온하면 백성이 화합하여 빛나가지 아니하며, 음악이 장중하면 백성이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백성이 화합하고 질서가 있으면 군대는 강하고 성은 견고해져 적국이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²⁶⁾

25) 『禮記·樂記』, “凡音者 生人心者也 情動於中 故形於聲 聲成文 謂之音 是故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 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 哀以思 其民困 聲音之道 與政 通矣”

26) 『荀子·樂論』, “樂中平則民和而不流 樂肅莊則民齊而不亂 民和齊則兵勁城固 敵國不敢 嬰也”

그렇다면 좋은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관련하여 「악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음악이라는 것은 성인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백성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킴이 깊어서 풍속을 바꿀 수 있다.”²⁷⁾

“따라서 음악이 유행하면 인륜이 밝아지고, 귀와 눈이 맑고 밝아지며, 혈기가 조화되며, 나쁜 풍속이 좋은 풍속으로 바뀌어 천하가 모두 편안해진다.”²⁸⁾

“인정을 화합하게 하고 용모를 꾸미게 하는 것이 예와 악이 할 일이다. … 이것은 인으로써 백성을 사랑하고, 의로써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²⁹⁾

결국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풍속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결국 위정자가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의 효과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2.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유학에서는 음악이 성립하는 근원을 ‘심’에, 그리고 그 원동력을 ‘심’의 움직임, 즉 감정에 두고 있음을 보았다.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서 촉발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 존재의 필연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 한 음악이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공의 물음에 악사 율이 답한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말하고, 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길게 말하며, 길게 말하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탄사로 표현하고, 감탄만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춤추고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³⁰⁾

27) 『禮記·樂記』,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28) 『禮記·樂記』, “故樂行而倫清 耳目聰明 血氣和平 移風易俗 天下皆寧”

29) 『禮記·樂記』,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 … 仁以愛之 義以正之 如此 則民治行矣”

30) 『禮記·樂記』, “故歌之爲言也 長言之也 說之 故 言之 言之不足故 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嘆之 嗟嘆之不足故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 子貢問樂”

순자는 음악의 존재의 필연성을 인간의 감정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무릇 음악이란 즐거움이다. 사람의 감정으로서서는 즐거움이 없을 수가 없는 까닭에 사람에게 음악이 없을 수 없다. 즐거우면 반드시 소리로 나타나고, 동작으로 표현된다. 사람의 도리가 소리, 동작, 본성의 작용 변화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³¹⁾

여기서 그는 인간인 이상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이란 어떤 형태로든 인간에게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순자의 견해와 비슷한 내용이 「악기」에서도 보인다.

“대개 樂이라는 것은 즐겁다는 것이니 人情이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즐겁다는 것은 반드시 聲音에 나타나고 움직임과 고요함에 나타나니 사람의 도이다. 聲音, 動靜에는 성정의 변화가 여기에서 모두 다 밝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즐겁지 않을 수 없고,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으며, 나타난다 하더라도 道를 행하지 않으면, 어지럽지 않을 수 없다.”³²⁾

그런데 「악기」의 내용에는 음악 존재의 필연성과 더불어 이러한 필연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음악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道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즐거움이 지나쳐 방탕함과 음란함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무릇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감응시키면 逆氣가 거기에 응하고, 역기가 형상을 이루면 음란한 음악이 일어난다. 아정한 소리가 사람을 감응시키면 順氣가 거기에 응하고, 순기가 형상을 이루면 조화로운 음악이 일어난다. 선창하고 화답하는데 응하는 것이 있어서 어긋난 것·편벽된 것·굽은 것·곧은 것이 각각 그 분수에 따라 귀결되니, 만물의 이치는 각자의 유에 따라 서로 감응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³³⁾

각각 선악의 종류에 따라 서로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만물의 이치이니 선한 소리와 악한 소리가 감응시키는 것이 선과 악으로 귀결됨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다.

31) 『荀子』「樂論」, “夫樂者樂也 人情之所必不免 故人不能無樂 樂則必發於聲音 形於動靜 而人之道 聲音動靜性術之變 盡是矣.”

32) 『禮記』「樂記」, “夫樂者樂也 人情之所不能免也 樂必發於聲音 形於動靜 人之道也 聲音 動靜 性術之變 盡於此矣 故人不耐無樂 樂不耐無形 形而不爲道 不耐無亂”

33) 『禮記』「樂記」, “凡姦聲感人 而逆氣應之 逆氣成象 而淫樂興焉 正聲感人 而順氣應之 順氣成象 而和樂興焉 倡和有應 回邪曲直 各歸其分 而萬物之理 各以類相動也”

이러한 이유로 인간에게 선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음악을 인간들에게 널리 가르치고 보급시키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즉, 음악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물론 음악의 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음악의 효과가 개개인에게 깊게 침투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풍속과 정치의 안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믿음이 음악교육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 것이다.

결국 나쁜 음악이 줄 수 있는 악영향과 좋은 음악이 줄 수 있는 효과 모두 음악교육의 필연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교육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군자는 성정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조화롭게 하고, 음악을 넓혀서 그 가르침을 이룬다. 음악이 행해져서 백성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그 덕을 볼 수 있다.”³⁴⁾

음악의 가르침이 행해지면 백성들이 바른 방향 즉, 道로 향할 줄 알게 된다고 한다. 음악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그리고 군자의 덕이 드러났음은 예악의 뜻이 드러났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예악을 모두 갖춘 사람을 두고 ‘德이 있다’고 한다. 德이란 얻는다는 의미이다.”³⁵⁾

음악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도로 향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음악은 소리도 음도 아닌 악일 것이며, 이 악은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악일 것이다. 그래서 ‘소리는 알면서 음을 모르는 것은 짐승이고, 음은 알면서 악을 모르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고, 오직 군자만이 악을 알 수 있다.’³⁶⁾ 한 것이다.

따라서 군자의 악은 곧 덕이며, 이는 곧 예악임을 알 수 있다. 군자의 악이 예악이 될 수 있음은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물의 이치 가운데는 모두 예가 깃들어 있으므로, 악을 아는 것은 예에 통한다.”³⁷⁾

34) 『禮記』『樂記』, “是故 君子反情 以和其志 廣樂 以成其教 樂行 而民鄉方 可以觀德矣”

35) 『禮記』『樂記』, “禮樂 皆得 謂之有德 德者得也”

36) 『禮記』『樂記』, “聲而不知音者 禽獸是也 知音而不知樂者 衆庶是也 唯君子爲能知樂”

37) 『禮記』『樂記』, “應氏曰, 倫理之中 皆禮之所寓 知樂則通於禮矣”

군자의 악은 사물의 이치를 통한 것이고, 사물의 이치에는 예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악과 예는 통한다는 것이다. 군자의 악과 예악의 목적이 동일함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악을 제정한 의도는 입·배·귀·눈의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장차 백성들로 하여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고르게 하여 人道의 올바름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었다.”³⁸⁾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악은 군자의 악, 예악이 되는 것이다.

3. 음악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예악

예악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의 악이 됨을 보았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예악은 유학적 음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런데 예악이 처음부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악은 예와 악이 합쳐진 개념이다. 고대 중국에서 그 개념이 형성되던 단계에서 예는 종교 의식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周代에 봉건제도가 사실상 확립되고 강력한 통치질서의 체계가 잡히면서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정치제도 내지는 사회적 규범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악도 마찬가지로 고대에 악이 제사와 결합하면서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주대에 와서 정치·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³⁹⁾

그런데 춘추시대에 이르러서는 예가 더욱 복잡해지고 형식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지배하게 된다. 악 또한 정도를 잃고 그 참다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공자는 예와 악을 인(仁)의 바탕 위에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는 예악 악이 인이라는 참다운 인간 정신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서로 독자적인 개념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던 예악이라는 단어가 인간성의 본질로서의 인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예악’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인 결합을 이루게 된다.

순자는 공자의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한 음악론인 예악관을 계승하여 보다 구체화시킨다. 그는 이러한 예악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심성론에 근거하여 밝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순자는 예악의 출현 근거를 인간의 성정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물의 이치를 모방하여 예악을 제작하고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38) 『禮記·「樂記」, “是故 先王之制禮樂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教民 平好惡 而反人 道之正也”

39) 이상은, “악기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Ⅰ)” 『동양철학연구』 제5집(서울 : 동양철학연구회, 1984), 101~102쪽.

이러한 순자의 근거와 처방은 「악기」에 그대로 계승되며, 「악기」에서는 악의 기원과 예악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진술로 드러나게 된다.

한편, 현실적인 사회의 정치·윤리의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인 해명에는 부족함을 느꼈던 유학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주역』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주역』은 자연·인간·사회의 내적인 전체 세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내려고 한 것이 특징이다. 『주역』의 자연과 인간의 통일, 대립적인 것의 조화와 통일, 대립적인 것의 상호 작용에 의한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관점은 「악기」에서 예악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철학적인 근거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유학에서 추구했던 음악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예악의 구체적인 모습은 「악기」를 통해 밝혀보도록 하겠다.

예악은 만물의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만물존재의 이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즉, 예악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예악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악의 표현 방법을 만들 수 있고, 예악의 표현 방법을 아는 사람은 예악을 가르쳐 전달할 수 있다’⁴⁰⁾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예악의 표현 방법이란 내용과 형식의 문제일 것이다. 내용이란 예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철학적 의미가 될 것이며, 형식이란 그러한 철학적 의미를 담아내기 위한 음악적 그릇, 음악적 형식이 될 것이다.

앞에서 예악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존재의 이치라고 했거니와 이는 곧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악기」에서는 예악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천지(天地)의 도를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음악은 하늘과 땅 사이의 자연을 화합시키고, 예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질서를 만든다. 화합시키므로 만물은 모두 동화되고, 질서를 만들므로 만물이 모두 각자 구별되는 것이다. 음악은 하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예의는 땅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것이다. 마련하는 것이 지나치면 어지러워지고, 만드는 일이 지나치면 난폭해지는데, 하늘과 땅의 도를 밝게 알고 난 뒤에야 능히 예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⁴¹⁾

예악을 가르치려면 예악의 본질을 알아야하는데, 예악의 본질을 알려면 천지의 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악기」에서 밝히고 있는 천지의 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 『禮記·樂記』, “知禮樂之情者能作 識禮樂之文子能述”

41) 『禮記·樂記』, “樂者天地之和也 禮者天地之序也 和故百物皆化 序故群物皆別 樂由天作 禮以地制 過制則亂 過作則暴 明於天地然後 能興禮樂也”

첫째, 하늘과 땅은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이로써 임금과 신하의 분별이 정해졌고, 낮고 높은 것으로써 벌려졌으니 귀하고 천한 지위가 자리잡혔고, 동과 정에 뚜렷한 법칙이 있으니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게 된다.⁴²⁾

둘째, 하늘과 땅은 생명 화생(化生)의 출발이다. 땅의 기는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는 아래로 내려오며, 이로써 땅의 기인 음과 하늘의 기인 양이 서로 마찰하여 천둥과 비바람이 생기고 사시를 순환시키며, 해와 달로 그것을 따뜻하게 하면 만물이 화생하여 흥기한다. 그런데 생물의 화생이 이 시기를 잃으면 생겨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분별이 있으면 음란에 빠진다.⁴³⁾

셋째, 하늘과 땅은 때에 맞음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의 도는 추위와 더위가 시기에 맞지 않으면 질병이 생긴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추위와 더위 같아서 교육이 시기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문란해진다.⁴⁴⁾

넷째, 하늘과 땅은 절도를 의미한다. 비와 바람이 절도를 잃으면 굶주리게 된다. 사업을 일으켜 공을 세우려는 것은 백성에게 있어 비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일의 절도를 잃으면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⁴⁵⁾

하늘과 땅의 높고 낮음은 임금과 신하의 분별, 귀하고 천한 지위의 설정, 크고 작음의 차이를 낳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일으켜 남녀의 분별을 낳았다. 하늘과 땅의 시기 적절함은 시기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하늘과 땅의 절도는 일에 절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도를 본떠 자연의 이치, 인간과 사물의 도리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의 이치, 인간과 사물의 도리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자연의 이치와 예악

예악이 자연의 이치를 반영하고 있음은 예악 속에 우주의 기의 움직임에 따른 자연의 생김새와 변화를 모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악기의 소리는 각기 자연의 사물을 상징하거나 음들의 생성, 배열의 질서는 자연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다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42) 『禮記·樂記』, “天尊地卑 君臣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小大殊矣”

43) 『禮記·樂記』, “地氣上齊 天氣下降 陰陽相摩 天地相盪 鼓之以雷霆 奮之以風雨 動之 以四時 煖之以日月 而百化興焉 如此則樂者 天地之和也 化不時則不生 男女無辨 則亂升 天地之情也”

44) 『禮記·樂記』, “天地之道 寒暑不時則疾 風雨不節則饑 教者民之寒暑也 教不時則傷世”

45) 『禮記·樂記』, “事者民之風雨也 事不節則無功”

“양이 발하는 소리가 있어도 산만하지 않고, 음의 소리가 있어도 밀폐되지 않고, 강기가 있어도 성내지 않고, 유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음과 양과 강과 유의 네 기가 적당한 정도로 악곡 속에 배합된 음이 밖으로 나타나게 한다.”⁴⁶⁾

“처음과 끝마침은 사시의 변화를 상징하고, 두루 도는 모양은 비바람의 변화를 상징한다.”⁴⁷⁾

2) 인간의 도리와 예악

인간의 도리는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임금과 신하, 귀하고 천함의 구별과 그에 따른 조화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도리가 예악으로 표현된 예는 다음과 같다.

“절주를 많게 하고, 그 악장을 분명하게 하여 백성의 덕을 두텁게 한다.”⁴⁸⁾

“성인이 도·고·강·갈·훈·지 등의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6가지 악기는 덕음의 음입니다. 그러한 뒤에 종·경·우·슬 등의 악기로써 먼저의 6가지 악기에 화합시켜 춤추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척·모·적 등의 기구를 들고 춤추게 하였으니… 관동의 차례나 귀천을 밝혀서 서로 알맞은 예를 행하는 데에 연주하는 음악이며, 후세에 준비와 장유의 차례가 있음을 보이는 데에도 연주되는 음악입니다.”⁴⁹⁾

“선왕은 … 아와 송의 글로 … 그 악곡의 곡직과 대소와 고저와 완급 등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하게 하였을 뿐이요…⁵⁰⁾

“궁음은 인간에 해당되고, 상음은 신하에 해당되고, 각음은 백성에 해당되고, 치음은 일에 해당되고, 우음은 사물에 해당된다. 이 5가지 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음악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파손됨이 없다.”⁵¹⁾

3) 사물의 이치와 예악

이는 사물에 알맞은 명칭과 차례를 부여하여 사물의 질서를 표현하고 시의 적절함을 음악으로 드러내야 함을 말한다. 그 내용을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46) 『禮記』「樂記」, “使之陽而不散 陰而不密 剛氣不怒 柔氣不懣 四暢交於中 而發作於外 皆安其位而不相奪也”

47) 『禮記』「樂記」, “終始象四時 周還象風雨”

48) 『禮記』「樂記」, “廣其節奏 省其文采 以繩德厚”

49) 『禮記』「樂記」, “聖人作爲鞀鼓柷敔鼗 此六者德音之音也 然後鐘磬笙瑟以和之 干戚旄 狄以舞之 … 所以官序 貴賤 各得其宜也 所以示後世有尊卑長幼之序也”

50) 『禮記』「樂記」, “先王 … 制雅頌之聲 … 使其曲直繁瘠廉肉節奏 足以感動人之善心而已矣”

51) 『禮記』「樂記」, “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 五者不亂 則無估遷之音矣”

“소절과 대절의 명칭을 보이고, 수장과 종장의 차례를 보여 그것으로써 사물의 도리를 표현하고...”⁵²⁾

“악곡의 소절과 대절이 서로 도우며, 수장과 종장이 서로 호응하며, 독창과 합창, 청음과 탁음이 서로 보완한다. 그러므로 음악이 행해지고 사물의 질서가 분명하게 느껴져서 귀와 눈이 총명해지며 혈기가 왕성해지며 풍속을 바꾸고 습속을 바꿔 천하가 모두 태평하게 되는 것이다.”⁵³⁾

“오제는 서로 시대가 다른지라 서로 앞 시대의 음악을 따르지 않았고, 삼왕은 세상이 다른지라 서로 그 예의를 이어받지 않았다.”⁵⁴⁾

“그러므로 명왕이 모두 앞 시대를 따랐던 것이며, 이에 일과 때가 적합하고 공적에 맞는 이름의 악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⁵⁵⁾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물 존재의 이치	내 용	음악적 표현
자연의 이치	하늘과 땅의 화기에 맞춤	• 음·양·강·유의 기가 적당히 배합된 음
	사시의 변화	• 처음과 끝마침
	비바람의 변화	• 두루 도는 모양
인간의 도리	백성의 덕을 두텁게 함	• 절주를 많이 함 • 악장을 분명하게 함
	관동의 차례, 귀천, 존비, 장유의 차례를 밝힘	• 도, 고, 강, 갈, 훈, 지의 악기와 종, 경, 우, 슬의 악기 연주에 맞추어 간, 척, 모, 적을 들고 춤추게 함

52) 『禮記·樂記』, “律小大之稱 比終始之序 以象事行”

53) 『禮記·樂記』, “小大相成 終始相生 倡和清濁 迭相爲經 故樂行而倫清 耳目聰明 血氣 和平 移風易俗 天下皆寧”

54) 『禮記·樂記』, “五帝殊時 不相沿樂 三王異世 不相襲禮”

55) 『禮記·樂記』, “禮樂之情同 故明王以相沿也”

「악기」에서 전통의 계승에 관한 관점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자하(子夏)와 문후(文侯)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고악(古樂)과 신악(新樂)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고악이란 전통을 계승하여 작곡된 것이고, 신악이란 현시대의 감각에 맞게 작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후는 의관을 단정히 하고 고악을 들으면 졸음이 오는데 신악을 들으면 졸음이 나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하에게 묻는다. 자하는 이에 고악은 무인의 동작이나 소리에 질서와 질도가 있어 몸을 수양하고 집안과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악은 무인의 동작에 정연함이 없고 소리도 방탕하여 윤리를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 즉, 신악은 사람의 감각을 강하게 자극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는 반면에 고악은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서서히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음악의 전통은 고악을 통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만물 존재의 이치	내용	음악적 표현
인간의 도리	인간, 신하, 백성, 일, 사물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그로 인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궁(인간), 상(신하), 각(백성), 치(일), 우(사물)의 5음을 조화를 이루게 함
사물의 도리	사물에 알맞은 명칭과 차례, 역할을 부여하여 사물의 질서를 표현함	• 소절과 대절의 명칭을 보임 • 수장과 종장의 차례를 보임 • 악곡의 소절과 대절이 서로 도움 • 수장과 종장이 서로 호응함 • 독창과 합창의 보완 • 청음과 탁음의 보완
	시대성을 반영	• 앞시대의 음악을 따르지 않음
	전통의 계승	• 일과 때가 적합하고 공적에 맞는 악곡의 명칭 부여

IV. 요약

‘악’은 性의 상태로서의 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그리고 『논어』와 『중용』에서는 성이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의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며, 이 본성은 회·노·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인간 감정 본연의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여 善이 性과 통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악하고, 나면서부터 갖가지 욕망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의 만족이 예와 윤리·도덕의 요구에 부합될 때에야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유학사상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자, 맹자와 순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의 추구가 도를 통한 인간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순자가 말한 바의 욕망에 포함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악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이 예에 위배되어 난잡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악’에 이미 윤리·도덕적 작용을 하는 기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악기」에서는 순자 이전, 정확히 말하자면 논어와 중용에서의 성의 개념과 순자의 심과 악의

작용에 관한 관점을 받아들여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악이 '천명지위성'으로서의 성의 상태인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외물에 감응한 심의 작용을 통해 정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예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악'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악'은 미적 형식과 도덕적 내용이 통일된 것으로서의 '악'이며,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 작용을 드러내기 위한 예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악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음악적 형식이 필요하다. 예악에서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포괄하는 만물존재의 이치이며, 이것은 음의 선택과 배열, 리듬, 악기, 악장, 연주형태, 무용, 시대성과 전통성을 함께 반영한 음악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결국 유학에서는 일관되게 음악교육을 통해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화해시키고 통일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도리가 구현된 사회, 자연의 이치를 담은 인간의 도리, 이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음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음악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시대성과 전통성을 함께 반영한 즉, 시대적인 요구를 올바르게 이해한 음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서적

『論語』

『孟子』

『荀子』

『周易』

『中庸』

『禮記集說大全』

2) 2차 서적

성백효 역.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1990.

_____. 맹자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1990.

_____. 대학중용집주.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1990.

안병주 역. 순자. 서울 : 삼성출판사. 1990.

김경탁 역. 주역. 서울 : 명문당. 1984.

송명호 역. 예기집설대전(二). 번역초고.

이택후·유강기 편, 권덕주·김승심 역. 중국미학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서복관 저, 권덕주 역. 중국예술정신. 서울 : 동문선. 1990.

3) 논문

이상은, “악기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Ⅰ)”, 동양철학연구 제5집, 서울 : 동양철학연구회. 1984.

_____, “악기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Ⅱ)”, 동양철학연구 제6집, 서울 : 동양철학연구회. 1985.

_____, “악기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Ⅲ)”, 동양철학연구 제8집, 서울 : 동양철학연구회. 1986.

_____, 유가의 예악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Confucian View of Musical Education

Lee, Kyung-eon

From the viewpoint of Confucianism, the origin of musical composition lies in "the heart of a human being." However, they say music does not directly come from the heart, but the heart must pass through the steps of sounds and tones before getting to music. Sound comes into being after the heart is moved in response to external things and emotions are expressed. Tones are the artistic form by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sound can be expressed in harmonious manner, and this artistic form combined with ethical contents is the music in Confucianism.

That music originates from expressions of emotions caused by movement of the heart explains the inevitability of the existence of music for human beings. As long as humans have hearts and emotions, the existence of music is inevitable.

However, even if music exists inevitably, there are the music that can give beneficial influence to human emotions and the music that cannot. Herein lies the necessity of musical education as a means to teach and spread the music that can give good influence to human emotions.

The music that gives beneficial influence to human emotions plays the role of harmonizing and uniting the people who were moved by the music.

In Confucianism, this kind of music that harmonizes and unites all things is called "Ye-Ahk." They believe that human perfection can be actualized through the education of Ye-Ahk. In conclusion, the ultimate objective of musical education in Confucianism is "the actualization of harmonious world through human perfection."

주제어 : 유학, 음악교육철학